

|         |            |            |            |      |      |
|---------|------------|------------|------------|------|------|
| 수리(水利)비 | 5,410      | 3,213      | 122,400    | 2262 | 3809 |
| 제재료비    | 1,369,840  | 2,621,844  | 183,600    | 13   | 7    |
| 감가상각비   | 713,011    | 2,277,203  | 229,500    | 32   | 10   |
| 기타비용    | 73,573     | 266,542    | 153,000    | 208  | 57   |
| 임차료     | 905,177    | 2,515,007  | 2,034,900  | 225  | 81   |
| 고용노력비   | 1,036,679  | 1,965,929  | 306,000    | 30   | 16   |
| 계       | 5,832,650  | 14,445,611 | 4,666,500  | 80   | 32   |
| 소 득     | 10,040,048 | 14,445,611 | 17,433,500 | 174  | 121  |
| 연간소득    | 2,510,012  | 2,407,602  | 3,486,700  | 139  | 145  |
| 소득율(%)  | 63.3       | 52.3       | 78.9       | 125  | 149  |

자료: 농축산물소득자료집(2012). 농촌진흥청

비목별로는 대부분의 비목에서 한국보다 낮았으나 한국의 4년재배와 비교해볼 때 종묘비, 수리비, 임차료 등은 중국이 많았다. 특히 수리비는 중국이 크게 많았는데 그 이유는 중국의 인삼재배는 삼포의 재배 두둑이 넓고 강수량이 적어 관수를 많이 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10a당 소득은 중국이 17,433,500원으로 한국의 4년 재배, 6년 재배보다 각각 74%, 21% 높게 나타났다. 중국은 5년 재배, 한국은 4년, 6년 재배가 되므로 이것을 연간소득으로 비교하여 볼 때도 중국은 한국의 4년 재배보다는 39%, 6년 재배 보다는 45% 높게 나타났다. 소득율도 중국은 78.9%로 한국의 63.3%(4년재배), 52.3%(6년재배)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국의 인삼은 재배방식, 가공방법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의 고려 인삼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인삼산업은 재배방법이 임간재배에서 평지재배로의 전환, 인삼식품 개발 확대, 장백산인삼을 브랜드로 육성하여 한국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품종을 밀수하고, 한국의 재배법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의 인삼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백산 인삼 생산이 크게 확대될 경우 국내로 인삼이 유입되어 국내 생산 농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국 길림성과의 경제성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은 중국에 비하여 수량이 크게 낮고 경영비는 너무 많이 투입되는 현실을 볼 때 생산성 증대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더 많은 연구와 기술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나. 중국 인삼산업의 육성과 제품 유통구조

### (1) 인삼산업의 발전적 육성

중국인삼의 성가(聲價)를 크게 높인 것은 1987년 제36회 세계발명박람회(布魯塞爾尤裏作=뿌루사이얼유리카)에서 무송현의 '장백산 홍삼'이 중국인삼 역사상 처음으로 “유레키” 금상을 받아 중국인삼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88년에는 신개하(新開河: 集安市)를 흐르는 강 이름을 제품명으로 사용(인삼이 제16회 제네바 국제발명과 신기술 박람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여 중국인삼이 국제적 발돋움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행사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중국인삼은 본격적인 재배 산업으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길림성 정부는 인삼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며 2005년 '인삼자원 종합개발 공작 추진조'(13개 관계 성·청)를 만들었고, 그 산하에 교수와 연구원으로 구성된 '인삼전문가 “고문조(顧問組)”'를 두고 사업을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또한 해마다 長春에서는 세계인삼 박람회를 개최하여 중국의 인삼을